

고흥군, 전용 탁구장 준공식 개최

탁구장 15면 갖춰...총사업비 15억원 투입

건축연면적 746㎡ 지상 1층 탁구장 2동 준공



고흥군은 생활체육활성화 및 맞춤형 체육인 프라 조성을 위해 탁구장 15면을 갖춘 현대식

탁구전용구장 신축을 완료하고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송귀군 고흥군수를 비롯해 고흥군의회, 탁구협회와 체육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그동안 고흥군은 고흥120명, 녹동 45명, 실버팀 60명 등 탁구클럽회원250명의 동호인들이 활동 중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체육센터 일부공간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협소한 장소로 인해 체육활동뿐만 아니라 전문 강사의 지도조차 받지 못하는 열악한 실정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탁구 동호인들의 생활체육욕구 해소는 물론 군민 생활체육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송귀군 군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번 탁구전용구장이 조성될 수 있었다.

총 사업비 15억원(국비 4억5천, 군비 10억5천)의 사업비가 투입된 고흥군 전용탁구장 건

립은 고흥읍 호형리 911번지 팔영체육관 인근 부지에 2021년 5월 착공하여 약 9개월만인 2022년 3월에 준공되었다.

시설규모는 건축연면적 746㎡, 지상 1층 탁구장 2동으로 실버탁구 팀과 청년클럽 팀이 동시에 경기를 해도 부족함이 없도록 탁구시설 15면의 넓은 공간을 마련하였고, 탁구 강습시설과 사무실 및 화장실, 샤워실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었다.

송귀군 군수는 "군민들이 언제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은 지속적인 도시발전과 주민건강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며 "앞으로도 체육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고흥군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생활스포츠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고흥군은 이번 탁구 전용구장을 확보함으로써 체계적인 강습을 물론 군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건강증진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세대간 화합의 공간 제공 및 향후 전지훈련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동취재본부

보성 한국차박물관, 스마트 박물관 구축지원 사업 선정

보성군 한국차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스마트 공립박물관-미술관 구축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보성군은 소장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총 사업비 2억 원(국비1,지방비1) 투입하여 '아카이브 월'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카이브 월'은 2층 차 역사실 입구에 설치될 예정이며, 한국차박물관의 소장자료를 디지털 매체로 변환해 카테고리별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소장품 태그 검색 기능을 추가하여 연계 작품 이미지, 인물, 역사, 지역, 문헌 정보 등 연관정보를 태그 형태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소장품을 활용한 염색 제작 등 굿즈 사업을 통해 소장품 활용도를 높이고, 방문객 정보를 박물관 마케팅에 활용하여 고객 맞춤형 관람 서비스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한국차박물관에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여 관람객들에게는 색다른 문화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디지털데이터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박물관 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차박물관은 지난 1월 '한국차박물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추진해 ICT융합 기술을 적용한 전시연출 및 체험 등을 도입하였고, 연차별 공간-전시 연출이 상시 가능한 박물관 시스템을 완성했다.

보성=김영순기자

여수시, '폐 보도블록 재활용' 무상 공급 신청 접수

11일부터 15일까지...필요한 시민에게 2파렛트(800장)씩 무상 공급

여수시가 '폐 보도블록'을 재활용해 필요한 시민에게 무상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기관과 단체, 개인이다.

신청인(단체) 당 2파렛트(소형 고압블록 800장)를 제공하며, 상자, 운반, 자재창고 현장 뒷정리 등은 직접 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4월 11일부터 15일까지며, 여

수시 도로시설관리과로 방문 또는 전자우편(hsk181200@korea.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여수시에서는 집하되거나 파손된 보도구간을 매년 순차적으로 정비해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올해도 34개소의 보도구간 정비 사업을 추진 중이며, 여기서 발생한 폐 보도블록을 필요한 시민에게 무상 공급하게 된다. 금년 사용 가능한 폐 보도블록 발생량은 약 1,100여 톤으

로 예상된다. 시는 공정한 공급을 위해 관련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우선순위 및 접수 순서에 따라 5월부터 공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용 가능한 폐보도블록을 건설폐기물로 처리하지 않고 필요한 시민에게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자원 재활용은 물론 건설폐기물 처리 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 여러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여수=오성호기자

광양경제청과 전남테크노파크 산업발전 공동 모색

광양민권의 대표적 투자유치 기관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송상락)과 지역산업육성 전문기관인 전남테크노파크(원장 유동국)가 만나 상호 협력의 기틀을 마련했다.

5일, 송상락 광양경제청장과 유동국 전남TP 원장은 양 기관의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글로벌 산업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광양민권의 전략산업에 미래 먹거리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고 공동의 대처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 기관에서 역할을 두고 있는 2차전지 부품 및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조성, 수소에너지 생산을 통한 탄소중립 특화단지 지정 추진, 화학-철강 등 전략산업을 클러스터로 묶는 혁신 생태계 조성사업 등 광양만권 전체의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시책을 중심으로 양 기관의 인적 자원과 네트워크를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를 통해 전남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극적으로 이바지한다는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순천시 서면, 행정복지센터 버스승강장 화단 봄꽃으로 새단장

서면 시정멘토단, 60여 평 화단에 봄꽃 3천여 주 식재



순천시 서면 시정멘토단(회장 이만찬)은 최근 서면 행정복지센터 버스승강장 앞에서

새 봄 맞이 봄꽃 식재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서면 시정멘토단 소속 회원

과 관계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여하여 198㎡(60평) 규모로 화단을 조성하여 가지나리아, 메리골드 등 봄꽃 5종 3,000주와 수국 100주를 식재하였다.

서면 시정 멘토단은 양성평등 등 명예면장으로 구성된 서면지역 봉사 단체로, 감자 나눔 행사, 취약계층 안부살피기 등 각종 봉사활동을 수년째 이어오고 있다.

이만찬 회장은 "서면 행정복지센터 버스승강장 앞 봄꽃 식재로 시민에게 깨끗한 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라며 "앞으로도 도심 구석구석 정원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장정영 서면장은 "매년 지역을 위해 봉사활동을 실천해 오고 있는 시정 멘토단에 감사드린다"라며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에 발맞춰 다양한 정원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기자

광양시, '점심시간 휴무제' 6개 면사무소 시범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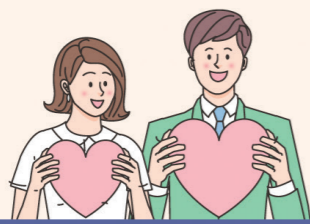
광양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점심시간(12~13시) 1시간 동안 6개 면사무소(봉강, 옥룡, 옥곡, 진상, 진월, 다압)를 시작으로 점심시간 업무를 보지 않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한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광양시공무원노동조합과 협의한 사항이며, 현재 점심시간 교대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민원실 근무자의 점심시간 전면 보장으로 직원 간 소외감을 해소하고 사기 진작을 도모해 시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시범 운영 후 8월부터 전체 읍면동 등으로 '점심시간 휴무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홈페이지, SNS, 전화연결음 송출, 현수막, 홍보 배너 등을 통해 사전 홍보를 강화하고 현재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 설치해 총 21대 운영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피할 수 없는 시대의 변화로 전국 타 지자체에서도 시행하고 있으며, 전라남도에서는 담양군, 장성군, 무안군, 곡성군, 영암군, 순천시가 실시 중이고, 광주광역시 는 7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광양=심종섭기자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누가 받나요?



방임, 유기, 학대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정폭력, 성폭력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